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꿈꾸는 오케스트라 사업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꿈꾸리 오케스트라' 운영이 중단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꿈꾸는 오케스트라 소속 어린이들의 공연 모습.

'꿈꾸리 오케스트라' 꿈을 잃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 심사 탈락 운영 중단 광주문화재단, 보완 요구 받고도 개선 안해 진흥원 "아이들 다시 교육 받도록 대책 강구"

'꿈꾸리 오케스트라, 꿈을 잃다.' 광주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꿈꾸리 오케스트라'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진행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이하 꿈오넷) 선정단체로 '꿈꾸리 오케스트라'를 운영해 온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2013년 심사에서 탈락, 사업을 중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진흥원으로부터 수차례 사업 계획서 보완 요구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꿈오넷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형 엘 시스템'을 표방하며 시작한 사업으로 각 지역의 문화재단과 공공예술기관이 지역의 국공립오케스트라, 민간오케스트라, 대학 음악학과와 결합해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 아이들에게 음악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사업비는 지난해 36억원에 이어 올해 46억원이 투입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8000만원~1억원씩 차등지급된다. 지난 2011년 꿈오넷 광주 지역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문화재

단은 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초등학교 50명으로 구성된 꿈꾸리 오케스트라를 2년간 운영해 왔다. 진흥원은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해 온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광주를 비롯해 목포, 광덕 등 4곳이 보류기관으로 선정됐고, 최종심사에서 광주와 광덕 2곳이 탈락했다.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은 교육을 받아왔던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 수차례 보완 지시를 내렸지만 재단측은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협력 오케스트라와 예술감독이 모두 교체되면서 기존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예술감독과 강사를 채용하고 협력 오케스트라를 선정하는 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을 받는 재단과 교육을 담당 음악가들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던 점을 고려,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투명한 채용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지만 재단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3월 재단 인사로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적절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모 심사에 참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점도 문제였다. 또 19개 지역 대부분이 진흥원의 지원에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등 매칭 기금을 확보한 데 반해 광주의 경우 2년간 매칭예산이 전무했고, 올해 역시 매칭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점도 약재로 작용했다. 성남의 경우 진흥원 지원금을 넣어서는 액수를 시가 매칭기금으로 내놓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전일 예술감독이 서류 심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사임하면서 정식 공모 과정을 거칠 경우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흥원은 10일 현재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 사업을 진행중이다. 서류심사를 거쳐 모두 14개 지역이 1차 선정됐으며 광주의 경우 광주남구문화재단이 광주대 음악학과와 함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광주 등 탈락 기관을 놓고 최종까지 고민했던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라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빠르면 4월부터 꿈꾸리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아이들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불편한 그림에 감춰진 진실은? 박수만 '쇼'전, 12~25일 롯데갤러리



'혹, 아무 꿈'

별거벗은 여성의 나체상을 음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8명의 남성, 속옷만 걸친 채 바나나를 입에 물고 있는 여성(노랑머리 시리즈) 화가 박수만의 캔버스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들은 대부분 옷을 입지 않았다. 성을 사고 파는 배역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때론 해학적인 모습으로 비치지만 관람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질문명에 매몰되고 일그러진 현대인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나체로 등장하는 인간군상에는 "원초적 생명력과 심성을 가진 인간으로 돌아가라"는 작가의 외침이 담겨있다. 박수만씨가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 1층에 있는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쇼'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씨는 광주롯데창작지원 공모에서 중진작가 부문에서 작가로 선정돼 초대전을 열게 됐다. 그는 전시 개막일(12일)에 '한국현대 미술선-박수만 아트북' 출판 기념회를 마련했다. 박씨는 전시에서 특유의 위트와 풍자가 넘치는 화풍을 펼쳐놓는다. 연작 '노랑머리'와 '혹, 아무 꿈'은 각박한 삶에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혹, 아무 꿈'은 사람들의 얼굴에 왜지저금통, 청마치, 술병, 술잔, 물주전자 등 그려넣어 사람과 사물의 경계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은 한낱 남루한 물건과 같을 수 있다는 강렬한 은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문의 062-221-18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손아유, 헨리 밀러' '고삼권, 一道' 6월30일까지 영암군립 미술관



손아유작 '예향색'

영암군립 미술관이 오는 6월30일까지 왕인 축제와 연계해 동강 하정웅 컬렉션 '손아유, 헨리 밀러(Henry Miller)' 특선전과 재일작가 '고삼권 - 一道'전을 개최한다. '손아유, 헨리 밀러'전은 동강 하정웅 선생이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3037점 중 재일작가 손아유와 헨리 밀러의 작품을 통해 고국을 떠나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아름다움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일본에서 독창적인 창작세계를 꽃피우다가 52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손아유는 점과 선, 색의 세계를 일군 추상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재일교포 2세인 고삼권은 강한 민족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확립한 작가로 분단 조국의 슬픔, 통일에 대한 열원, 5·18민주화운동 등을 작품에 담았다. 미술관은 하정웅 선생이 지난 2007년 영암군에 미술 작품을 기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9월 개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후보 접수 무려 17명 면접 거쳐 20일까지 최종 후임자 선임

현재 공석중인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 사무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마감일 현재 17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단측은 마감일인 1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무처장 공개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고 이달 8일부터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이날 현재 17명이 접수했다. 접수자 대부분은 지역 문화관련 인사들이며 이 가운데 타지역 출신도 1~2명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재단측은 11일부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을 거친 다음 5명의 심사전문위원회의 면접시험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최종 후임자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11일 오후까엔 최종 접수자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겠지만 이날까지 예상보다 접수자가 많아 재단 내부에서도 놀라는 분위기"라며 "현재 심사전문위원회를 구성중이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면접 당일 최종 심사위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900원으로 읽는 '택리지'

'올재 클래식스' 인문고전 시리즈 4권 출간

비영리 사단법인 올재가 펴내는 2900원짜리 인문 고전 시리즈 '올재 클래식스'로 '택리지' 등 4권이 새로 나왔다. '택리지'는 조선 시대 이종환이 남긴 풍수지리 고전으로, 이번엔 풍수 전문가인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의 해제를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루소의 '사회계약론 외' (박은수 역), '서경'(권덕주 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황문수 역) 등 동서양 대표 고전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연합뉴스

'올재 클래식스'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인문 고전을 2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펴내고 있으며, 이번까지 25권이 발간됐다. 고전 한 권을 4000부씩 한정 판매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별도로 1000부는 소외 계층에 기증한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1주년 **KJB**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Duniopillo

Duniopillo

ITALIA BED

홍스페이스

단롭침대 광주 대리점, 천연라텍스 100%

세계최초 최고 라텍스, 유기농 항균커버, 척추질환 교정,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영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1899-0240